

지지율 반전 노리는 이재명, 집토끼·산토끼 동시 몰이

배우자 김혜경씨 다시 사과

이낙연 재등판 호남결집 포석

김종인·이상돈 회동 중도층 잡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최근 지지율 수세 국면을 반전하고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모드'에 들어갔다. 당장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9일 법원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기간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꺼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절박한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아내 김혜경씨는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법원까지 유용 및 과잉의전 논란과 관련, "저의 부족함으로 생긴 일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입장문을 통해 송구하다는 뜻을 밝힌 뒤 침묵을 지켜온 김씨는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국면 전환을 위한 정면돌파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씨는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다"며 "제가 저야 할 책임을 마땅히 지겠다.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 후 애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드리고, 끝까지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두 제 불찰이고 부족한 결과"라며 "앞으로 더 조심하고 더 경계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고 말한 뒤 다시 한번 머리를 숙였다.

김씨는 보도된 각종 의혹의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수사와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다"며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결과가 나와 책임이 있다면 책임질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선대위 측에서는 김혜경씨의 사과로 그동안 법원까지 유용 및 과잉의전 논란이 어느정도가 가라앉지 않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김혜경씨와 관련된 논란이 이 후보의 트레이드 마크인 '변화와 공정'의 가치를 상당 부분 훼손했다는 점에서 이날 사과가 과연 민심의 공감을 이끌어 낼 것인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선 설 연휴 상승세를 보이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결합 우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됐던 이 후보의 지지율이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원까지 유용 및 과잉의전 논란에 직면하면서 하락세로 전환, 점차 경향 열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 측은 이날 총괄선대위원장 카드로 호남 민심 등 전통적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고 있다. 이 후보 측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온전히 대신 후보 지지율로 담아내지 못하고 늘 4-5%포인트가량 뒤처져 있다는 점을 뼈 아프게 여기고 있다. 이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남아 있는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정치적 기반인 호남 지지층의 미결집, 당내 경선 후유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를 지냈고 호남 출신인 이 위원장을 선대위의 '일꾼'으로 내세워 이런 약점을 한꺼번에 상쇄하겠다는 포석이다.

이 후보 측은 이와 함께 최근 사흘 동안 김종인·이상돈·윤여준 등 중도·보수 진영 원로급 인사를 차례로 만나며 중도 확장 행보를 펼치고 있다. 당장 이들로부터 지지 선언을 얻어내거나 선대위 합류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만남 자체가 중도층에 소구력이 있을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

선거 막판 초대형 변수로 주목되는 후보 단일화도 이 후보 측의 주요 현안이다.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향한 당 안팎의 '러브콜'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안 후보가 실질적으로 이 후보와 손을 잡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연대의 손질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내심 안 후보가 대선 완주 약속을 지키길 바라는 전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잉의전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지속 위해 성과 가시화해야”

3차 수정계획 종합토론회

핵심 콘텐츠 발굴 투자 시급

권역 사업 선별 실행력 높여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조성사업)이 계획 기간 종료 후에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과를 가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4대 역점 과제 하나인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투입액이 지난해까지 전체 1조7259억 원 중 4.3%인 743억 원만 투입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조 기 핵심사업을 발굴,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도 지적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일 오후 3시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 3차 수정계획'에 대한 종합토론회를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장훈 연구위원이 3차 수정계획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수립배경 및 추진성과와 한계=이번 3차 수정안은 아문법 제5조에 5년마다 종합계획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근거에 따라 마련됐다.

먼저 문화전당 개관 후 930건의 프로그램, 행사를 개최한 것은 나름의 성과로 보인다. 그러나 콘텐츠 선순환 구조 실현 어려움 등 당초 목적인 문화발전소로서의 성과 부진, 글로벌 미래의제 선도 측면에서의 한계가 노출됐다.

문화도시기반조성 사업은 사업비 규모를 확대하고 국제적 문화도시 기반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1차 수정계획 기간 87억 원에서 2차 수정 계획기간 307억 원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5대문화권 연계성 및 사업간 체계성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특히 사업계획 구체성 결여와 사전 절차 미이행으로 집행률이 4.5%에 불과하다는 점은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조성사업 전체 투자규모는 5.3조원이며 2021년까지 투입액은 38.5%인 2조358억으로 집계됐다.

문화예술·관광·콘텐츠산업은 종합적이고 입체적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한 점은 성과다. 그럼에도 경쟁력 있는 콘텐츠 부재와 문화콘텐츠 연계 미흡은 풀어야 할 과제다. 국제교류 부문은 아시아와 지역, 세계를 잇는 문화적 역할을 도모한 점은 긍정적이나 아시아권 중심의 제한적 교류와 사업 주체간 모호한 역할 분담은 한계로 보인다.

◇3차 계획 수정 방향=이번 3차 계획은 아문법 개정안 외에도 미래세대, 기술 및 산업, 자치분권

등 거시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마련됐다. 수정 방향의 키워드는 '발전', '지속', '다양', '미래'로 집약된다.

구체적인 추진 과제로 먼저 문화전당의 지역, 국가, 세계의 문화거점 역할 강화를 들 수 있다. 문화와 기술의 융합을 통해 문화적 상상력이 실현되는 문화발전소, K컬처의 원형을 발신하고 국제적 아젠다를 선도하는 국제문화교류 기관을 상정했다. 이를 위해 한국형 '바우하우스' 모델 구축과 충실한 도청 복원으로 민주·평화·인권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은 5대문화권 공간 연계를 강화하고 권역별 핵심사업을 선별해 실행력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5개 자치구간 연계, 나아가 5대문화권을 문화와 미래, 다양성의 3대 발전축으로 설정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마지막으로 문화도시 역량 및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도시 간 국제문화교류 확대, 지속적인 국제행사 유치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송진희 호남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정미 조성사업추진단장을 비롯해 패널로 황병하 조선대 명예교수, 김기근 광주전남연구원 연구관, 정성구 도시콘텐츠연구소 소장, 이기훈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이사 등이 참석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윤석열 '민주당 정권 범죄' 발언 靑 "부적절하고 불쾌...선 지켜라"

尹 "문제 없다면 불쾌할 일 없어"

청와대는 9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 등과 관련해 현 정부를 직접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매우 불쾌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언론에 윤 후보께서 하신 말씀이 보도됐다.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선거거리지만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느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이 관계자는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라는 부분이 불쾌하다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청와대의 이날 반응은 문재인 정부를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는 듯한 언사에 반발하는 한편, 스스로 성과로 자평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을 노골적으로 비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언급은 윤 후보의 최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나왔다.

윤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 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여당의 주장을 두고 "검찰 공화국 같은 소리 하지도 말라"며 "수사도 못 하게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총장을 파출소 수사관만도 못하게 짓밟은 사람이 누군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정권 사람은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또 '문재인 정부처럼 전 정권 적폐 청산 수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관여 안 한다"며 "다 시스템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자신의 '적폐 청산 수사' 관련 발언에 대해 불쾌하다는 입장을 낸 것을 두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제 될 것이 없다"며 불쾌할 일이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 말에)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며 "내가 한 것은 정당한 적폐 처리고, 남이 하는 건 보복이라는 그런 프레임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동백꽃아름다운 거문도

거문도 백도 당일 **89,000원**

☺ 여/행/문/의

|메이투어 062)385-0515
|아이티여행사 062)382-8866

•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